



만로랜드, 아시아 매니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전설은 계속된다” “신기술이 대기중이다”

만로랜드코리아(주)(대표이사 안형준)는 지난해 11월 27일 앰배서더호텔에서 아시아지역 영업 담당 매니저 헤이케 웨버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만로랜드는 새로운 투자자가 합류한 지난해 2월 이후 조직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고품질·생산성 향상 투-트랙 전략

만로랜드는 지난해 9월 작업준비시간 절감, 생산성의 안정화, 향상된 자동화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R&D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완전한 제품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의 영업실적도 양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품질 인쇄를 지향했던 만로랜드의 R&D 전략을 앞으로는 품질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에도 힘을 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헤이케 웨버 아시아지역 담당 매니저는 “만로랜드는 지난해 2월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며 R50부터 R500, R700, R900 모두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주문도 잘 받고 있다. 드루파2008에서 선보인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만로랜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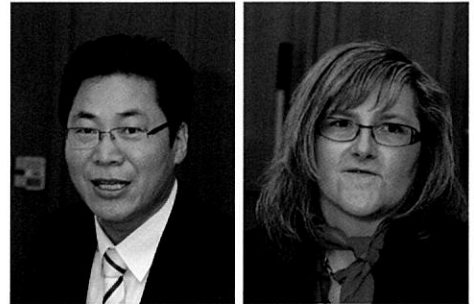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인라인 컬러파일로트, 새로운 다이렉트드라이브, LEC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인라인 컬러파일로트...자동 핀맞춤·컬러값 조정

만로랜드의 전설인 로랜드 R700은 어느 해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생산, 판매, 공급됐으며, 인라인 컬러파일로트를 통해 한층 진화했다. 인라인 컬러파일로트는 ISO12647에 근거한 인라인 컬러 제어와 핀맞춤 시스템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인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인라인 핀맞춤과 컬러값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Bobst 다이커팅 기계와의 성공적인 호환을 위한 자동 핀맞춤 통합 Bobst-가늌자 마크 제어바 보유 등을 실현했다.

인라인으로 색상을 조절하고 핀맞춤 작업을 하면 작업 시간이 절약되고 손지율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이전의 온라인 컬러

만로랜드는 지난해 2월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문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며 R50부터 R500, R700, R900 모두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주문도 잘 받고 있다.



안형준
만로랜드코리아(주) 대표이사

헤이케 웨버
아시아지역 영업담당 매니저

파일로트에서는 별색을 감지할 수 없었는데, 인라인 컬러파일로트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최대 7색까지 별색을 활용할 수 있고 작업시간과 손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쇄기 내에서의 농도 측정, RGB 플래시(LED) 노광, 콘트롤 스트립 측정, 모든 잉크 영역의 동시 측정, 인쇄기 통합 크로스 멤버, 압축 공기 활용 셀프 클리닝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로랜드 R700 하이프린트에 적용되는 인라인 컬러파일로트를 통한 L*a*b* 컬러값을 활용한 품질 제어, 모든 측정값에 부합하는 컬러값의 표시 등과 같은 새로운 특징이 부가됐다.

작업 시간 단축-에너지 절감

다이렉트드라이브에도 새로운 몇몇 기능이 추가됐다. 인쇄판을 교체하는 동안에도 단지 2분 만에 코팅 유닛을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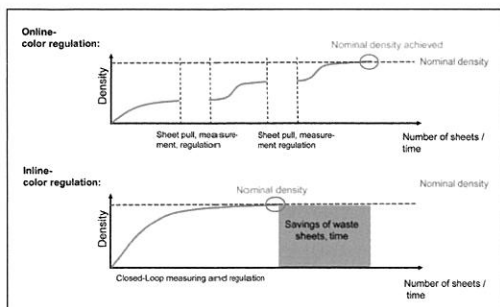
할 수 있으며, 잉크 롤러를 세척하는 동안에도 코팅 폼을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작업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이룬 것이다.

LEC(Low Energy Curing ; 저에너지 경화) 기능 도입도 눈에 띈다. 상업용 부문에서의 LEC는 UV공정의 건조시간 불필요, 즉시 후가공 등의 장점을 비롯해 일부 후가공 용지의 적재 불필요, 용지 즉시 전환, 양면 인쇄, 파우더 분사 불필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LEC 공정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기본 원리로 잉크가 LEC 공정과 비흡수 재질의 표면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 더해졌다. 또한 패키징 분야에서의 LEC는 UV 모듈이 낮은 수치에서의 에너지 절감, 전자 캐비닛에 필요한 공간의 절감, 보다 적은 투자비용, 표준 UV(높은 잉크 범위, 별색 잉크, 재료 적합성)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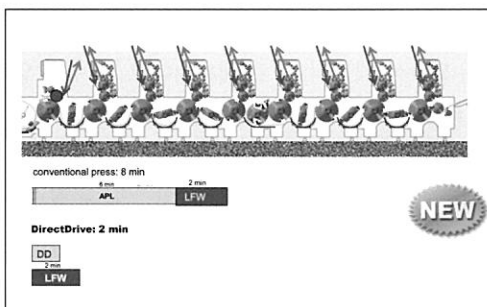
합하는 작업성 실현 등을 이뤘다.

디지털과 오프셋의 성공적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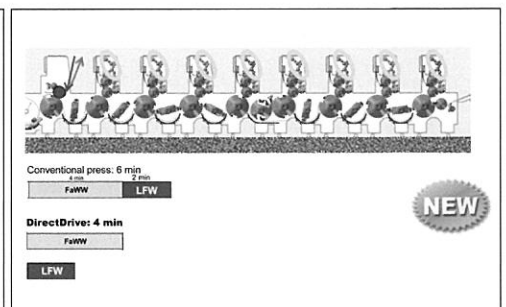
만로랜드가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인쇄는 아날로그 인쇄 후 마지막 유닛에 잉크젯 디지털 기기 붙여 가변데이터 인쇄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시제품 개발이 완료 돼 유럽에서 필드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2013년에는 국내에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만로랜드는 아날로그+디지털 인쇄를 실현하는 관련 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이로써 만로랜드는 고객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를 삽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을 통해 패키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쇄하고 가변 바코드는 디지털 기기로 처리함으로써 원스톱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라인 컬러파일로트의 시간절약·손지절약 테스트 그래프



판을 교환하는 동안에도 코팅유닛을 교환할 수 있다.



잉크롤러 교환중에도 코팅 폼을 교환할 수 있다.